

“AI 대전환, 원자력이 필수… 원전 활용 과감히 확대해야”

오늘의 DT인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미래 전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과 증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이기복(사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최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I 대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 측면에서 원자력은 필수불가결한 전력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올 1월 취임한 이 회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원자핵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소통협력본부장, 정책연구부장, 교육센터장 등 원자력 연구와 정책,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친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미래 원자력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MR 상용화,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국내 건조 승인, 농축 및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등 최근 불거진 원자력 현안과 이슈, 우리의 대응 전략에 원자력 전문가답게 소신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승인을 환영한다며 “향후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반도체 전력 등 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은 전력 병목완화를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

년의 설계 수명이 도달한 2023년 4월 8일 운전허가 기간이 종료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단 2년 7개월 만인 지난달 10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계속 운전 신청이 늦어져 설비 개선과 보수를 한 후 2026년 2월 재가동되더라도 실제 가동 기간은 7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으로 신규 원전 건설 없이 추가 전력 확보가 가능해졌고, 앞으로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고리 3·4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기의 신규 대형 원전과 1기의 SMR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 미래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원전과 SMR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됐으면 한다”며 “그래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요금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승인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 협력의 큰 전진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



전력수요 급증… 계속운전 허가·신규 원전 건설·SMR 상용화 해법
원자력추진 잠수함·농축·재처리 등 한미 협력의 큰 진전서 의미 커
SMR 경쟁력 갖춰… 신속 승인규제 확립·국내 실증 통해 수출 추진

기, 한빛, 한울 등의 계속 운전 신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운전 심사를 적기에 받아 원전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국처럼 계속 운전 기간을 20년으로 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285기의 원전 중 258기는 계속운전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운전은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이 커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계속운전이 필요하고, 증장기적으로는 대형 원전 신규 건설과 SMR 건설이

조가 가능해지고,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 간 합의한 ‘지지’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만약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면 설계와 운영 인력 양성과 방사선차폐가 가능한 건조시설, 육상 실증시험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뿐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핵확산 준수 등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농축과 재처리, 원자력추진 잠수

함 개발은 핵연료 공급과 에너지 안보, 원자력 기술 주권 확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SMR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소형 원전인 SMART를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증을 받은 데 이어, 개선된 SMART100도 지난해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했다.

또 민간과 함께 혁신형 SMR, 용융염 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해상형 SMR 등 다양한 SMR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상위권 수준의 SMR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상용화 속도, 규제 체계, 글로벌 금융 경쟁력 등은 기술 선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상용화를 전제로 SMR에 대한 신속한 승인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실증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원전 수명연장과 SMR 개발 가속화,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 등 원자력의 실용적 활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감한 확대를 통해 AI 대전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교보생명, 업계 최초 CCM 10회 연속 인증… 대통령 표창 수상

〈소비자중심경영〉

교보생명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이 대외적으로 호평 받았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업계 최초로 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함과 동시에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교보생명은 CCM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CCM 인증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



조대규(가운데)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교보생명이 고객중심을 핵심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교보생명은 CCM 운영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고객 의견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 등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

층 회의에서 고객의소리(VOC)도 정취하고 있다.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영업문화 정착 노력도 돋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현장을 개장·선포했다.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월 2주차 수요일을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운영 중이다.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였다. 완전 가입과 민원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및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 수상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교보생명의 경영철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혁신적인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는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



윤명옥(왼쪽부터)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사무총장 겸 GM 한국사업장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최고마케팅책임자, 권도국 계양구가족센터 센터장, 김성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장이 지난 12일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GM 제공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여성·다문화 지원사업 발대식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는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가족센터에서 ‘2025년 여성·다문화 기관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여성·다문화 사회복지기관의 기능보강과 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마음재단은 인천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에 각 기관별로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노후된 PC, 가전제품, 교육 기자재 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생활 환경 조성과 정보 접근성 향상,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임주희 기자 ju2@

KB손해보험,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

KB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CCM 인증 취득은 KB손보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 △소비자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소비자 보호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 받은 것이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지난 12일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제공

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KAIST “등산하면 장학금”… 권준하 신의산화물터미널 회장 5억 펀드 기부

KAIST는 권준하 신의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원금 보존형 유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사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되는 방식으로, 이번 기부는 원금 5억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장학기금이다.

KAIST에 유언을 활용한 기부 사례는 있었지만,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로 조성되는 ‘미산 등산장학금’은 성적·소득 기준 없이 ‘등산’만으로 선발되는 국내 최초의 이색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KAIST 지정 등산 인증 앱을 통해 코스를 완주하면 지급된다. 연간 7회 등산 시 70만원, 4~6회 등

산 시 3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약 150명 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부 방식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는 펀드, 등산, 기부로, KAIST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권준하(오른쪽) 신의산화물터미널 회장이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